여수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청 건의서

존경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여수 지역경제의 절박한 현실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지역 상권은 급격히 침체되었고, 수많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으로 폐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더 이상 개별 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여수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여수시는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기업의 생산 축소와 투자 감소가 이어지면서 협력업체와 노동자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직결되어 지역 상권 전반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음식점, 숙박업, 전통시장,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요금, 금융비용 등 고정비 부담까지 더해져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폐업을 선택하거나 직원 수를 줄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시민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며,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사항을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 여수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건비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와 업종전환을 위한 컨설팅 및 재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의 위기는 소상공인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의 고용과 소비,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깊이 헤아려 여수시를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8월 7일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 겸